

캘리포니아 오렌지 교구 주교단의 성명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에 부쳐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큰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겸손과 자비로 실천하시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굳건한 믿음을 지니셨던 한 목자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재위 초창기부터,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모범은 우리교구의 사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길 잃은 이들을 환대하며,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이와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목이 남긴 지속적인 흔적에 서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선교적 제자도의 정신이 우리 교구를 계속 이끌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교황님을 맡겨 드리며, 이제 영원한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을 비추시기를 믿고 희망합니다.

우리의 성부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되돌아보며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부활 팔일 축제 동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의 최근 회칙인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의 마음(Corde Amoris, Dilexit Nos)'은 이 시기에 읽고 묵상하기에 특히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황직 동안, 특히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목자로서의 충실한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깊이 사랑하셨던 교회가 계속하여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케빈 W. 밴 주교  
티모시 E. 프레이어 보좌주교  
탄 타이 응우옌 보좌주교